

『영미연구』

제57집 (2023): 37-62

<http://doi.org/10.25093/ibas.2023.57.37>

『스킵』에서 장애/질병 서사 연구

유 현 주

단독 / 상명대학교

【국문 초록】

마리코 타마키와 질리안 타마키의 『스킵』(2008)은 “스킵”이라는 별명을 지닌 일본계 캐나다인 소녀 김벌리 케이코 카메론의 성장 이야기를 일기형식으로 전달하는 그래픽 소설이다. 『스킵』은 1990년에 대부분 학생이 백인으로 구성되어있는 토론토에 소재한 카톨릭 여고에 다니는 일본계 캐나다인 16살 소녀 김벌리 시각을 토대로 쓰여진 그래픽 자서전으로, 독자들이 청소년 자살 이슈를 퀴어성, 소녀성, 인종, 장애/질병 등의 이슈와 관련지어 비판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의 장애/질병 서사가 청소년 우울증, 자살 충동, 섭식 문제 등을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질병으로 간주하는 의학적 지배 담론에 어떻게 저항하며 이를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 소설이 ‘다 나올 거야’라는 장애/질병의 극복이나 몸/마음의 원상태로의 회복을 결말로 한 ‘선형적 성공서사’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비롯하여, 장애/질병을 지닌 사람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무성적인 존재라는 선입견, 편견을 해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스킵, 트라우마, 청소년 자살, 우울증, 장애/질병

1. 서론

마리코 타마키(Mariko Tamaki)와 질리안 타마키(Jillian Tamaki)의 『스킴』(2008)은 “스킴”(Skim)이라는 별명을 지닌 일본계 캐나다인 소녀 킴벌리 케이코 카메론(Kimberly Keiko Cameron)의 성장 이야기를 일기형식으로 전달하는 그래픽 소설이다. 『스킴』은 2008년 이그나츠상(Ignatz Award) 최우수 그래픽 노벨상과 2009년 더 그라이트상(Doug Wright Award)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으로, 소설에 자서전적 요소를 혼합하여 10대 소녀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과 사춘기 시기에 느끼는 혼란, 분노, 안타까움, 외로움, 허무, 짜증, 원망, 사랑, 진지함 등의 복잡한 감정들을 글과 그림의 조합으로 섬세하게 잘 살려내고 있다. 『스킴』은 1990년에 대부분 학생이 백인으로 구성되어있는 토론토에 소재한 카톨릭 여고에 다니는 일본계 캐나다인 16살 소녀 킴벌리 시각을 토대로 쓰여진 그래픽 자서전으로, 독자들이 청소년 자살(youth suicide) 이슈를 귀여움, 소녀성, 인종, 장애/질병 등의 이슈와 관련지어 비판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Froese & Greensmith 32). 작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쓰여진 이 작품은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경험들(자살 충동, 집단따돌림, 방치, 식욕 장애, 동성애, 트라우마, 우울증, 소외감, 우정과 사랑, 학교의 억압과 통제 등)을 1인칭 시점에서 사실적이면서도 시적으로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날씬하고 백인인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카톨릭 여학교에 다니고 있는 주인공 스킴은 카톨릭교의 관점에서 이교도라 여겨지는 위카(Wicca)에 관심이 많은 ‘고트족’(Goth)으로, 뚱뚱하고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가 없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집단 내에 속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이다. 그녀는 평상시 학교에서 다양한 배제와 차별을 겪고 폭식증과 우울 증상을 보이는데, 학교에서 문학(드라마)을 가르치는 여교사 아처 선생님(Ms. Archer)을 좋아하면서 서부터는 학교생활에 조금씩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처 선생님마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학교를 떠나자 이전보다 심한 폭식증과 우울증을 겪게 된다. 스

킴은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우울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몸과 ‘아픈’ 마음(정신)을 지닌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취급을 받는다. 학교는 자살 예방과 치료라는 명목으로 스킴의 식욕 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을 개인적 장애/질병으로 치부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다. 스킴은 그녀의 일기장에 학교의 비인간적 간섭과 통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겪는 식욕 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사회에 뿌리박힌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의 장애/질병 서사가 청소년 우울증, 자살 충동, 섭식 문제 등을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질병으로 간주하는 의학적 지배 담론에 어떻게 저항하며 이를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 소설이 ‘다 나을거야’(Getting Better)라는 장애/질병의 극복이나 몸/마음의 원상대로의 회복을 결말로 한 선형적 ‘성공서사’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비롯하여, 장애/질병을 지닌 사람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무성적인 존재라는 선입견, 편견을 해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체장애 차별주의(Ableism) & 정신장애 차별주의(Sanism)

아름다운 신체와 건강한 정신의 사회, 문화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스킴의 ‘비정상적인’ 신체와 ‘아픈’ 마음은 주변으로부터 원치 않는 관심과 시선을 끄는 자석이 된다. 스킴은 폭식증과 우울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자살 고위험군에 분류되어 학교에서 감시와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낙인찍히는데, 스킴이 학교에서 받은 낙인은 캐나다 사회에 만연한 신체장애 차별주의(Ableism)와 정신장애 차별주의(Sanism) 이데올로기로 인해 정당화된다. 스킴이 사회에서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낙인찍히며 주변으

로부터 받는 차별과 억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신체장애 차별주의와 정신장애 차별주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프리 프레스턴(Jeffrey Preston)에 의하면 문학, 문화, 영화, 예술, 연극, 소설 등에서 장애인 이미지와 삶의 재현은 “비장애인의 상상”(10)에 기반을 둔 것이다. 대중 매체는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삶과 장애를 그려내며 장애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으로 뿌리 깊은 선입견과 편견을 조장한다. 로날드 버거(Ronald Berger)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장벽과 표식으로 인해 장애가 “열등하고 종속적인 사회적 지위로, 무가치한 삶의 경험으로 구성”(27)됨을 지적했으며 토빈 시버스(Tobin Siebers)역시 “비장애의 몸이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상징한다”(4)라는 믿음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 및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비장애인들의 욕망과 필요에 의해 공표되고 자명한 진리로서 보편화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 혐오주의가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비이성적 편견과 차별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장애 차별주의는 신체적 장애를 일탈, 비정상, 혹은 결함으로 규정하고 비장애를 기준, 표준, 완벽, 우월, 보편, 혹은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통제, 무시, 배제, 격리, 억압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데 기여한다. 신체장애 차별주의는 곧, “비장애인의 경험과 관점의 중심화와 지배화”를 의미한다(Linton 9).

신체장애 차별주의가 신체장애인을 차별하듯, 정신장애 차별주의¹⁾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의미한다(LeFrancçois et al. 339). 신체장애 차별주의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비장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언어, 행동, 태도, 법, 정책의 집합을 의미하듯, 정신장애 차별주의는 정신과 진단을 받거나 치료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기록은 없으나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 배제, 억압, 무시를 뜻한다. TV, 영화, 책, 만화, 잡지, 신문과 같은 대중 매체는 종종 정신적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험한 살인자, 괴기스러운 천재, 무자비한 악당, 무성적 존재, 무능력자, 사회 부적응자

1) ‘정신장애 차별주의’ 용어는 1958년에 정신과 환자의 권리를 주장한 변호사 모튼 번바움(Morton Birnbaum)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Meerai et al.).

등으로 묘사하며 정신장애자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영속화하는 데 기여한다. 즉, 정신장애 차별주의로 인해 정신적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하며, 위협하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신뢰할 수 없고, 폭력적이라는 편견과 오해가 만들어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거부하고, 감금하는 등의 신체적 혹은 인식론적 억압과 폭력 행위가 당연시되는 것이다. 신체장애 차별주의와 정신장애 차별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 ‘규범,’ ‘표준,’ ‘이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스킴의 ‘날씬하지 않은 몸’과 ‘우울한 마음’은 ‘통제되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할 장애/질병으로 간주된다.

3. 제멋대로인 몸과 마음: 스킴의 “떡기”행위와 우울증

스킴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공부보다는 비기독교적인 위카 종교에 심취되어 있어 주위에 ‘위칸’(Wiccan)으로 알려져 있다. 스킴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관심과 애정을 갖는 대상은 아처 선생님이다. 어느 날 팔에 깃스를 했다는 핑계로 체육 시간에 체육관에 가지 않고 학교의 후미진 곳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스킴을 발견한 아처 선생님은 스킴을 혼내기는 커녕,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스킴의 깃스에 “반항의 심장”를 하나 그려주며 스킴에게 학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격려한다. 스킴은 왜 학생들이 그녀에게 ‘스킴’이라는 별명을 붙여 준 것인지 물어보는 아처 선생님에게 자신이 날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사실 친구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스킴이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을 눈치챈 아처 선생님은 “너는 당연히 Kim으로 불리길 원할 텐데”라고 말하며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준다(27). 스킴은 자신의 뚱뚱한 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별명이 그녀에게 항상 자신이 정상, 표준, 주류가 아님을 상기시키고 위축감, 우울감,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는 아처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27), 아처 선생님 역시 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기 전에 화가였고,

댄서였고, 작가가 되기 위한 공부도 했었다며 스킴에게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마음을 연다(31). 그리고 팔의 김스를 만지거나 자신의 눈을 뺏히 쳐다보며, “너의 눈을 계속 바라보게 돼”(Mr. Archer says she can't stop looking at my eyes)라고 말하는 아처 선생님에게 스킴은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31). 사실 스킴은 이혼을 한 이후에도 돈 문제로 서로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것에만 온 신경을 쓰는 부모님, 다른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존 레더(John Reddear)의 자살 소식, 친구 리사 수어(Lisa Soor)와의 피상적인 관계²⁾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고 자면서 자신의 우울증을 달래보려 했지만, 오히려 이는 그녀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하지만 아처 선생님과 가까워지면서 스킴은 학교생활에 서서히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

스킴과 아처 선생님의 관계는 숲속에서 키스를 한 이후부터 사제시간을 넘어 동성애적 관계로 넘어간다. 스킴과 아처 선생님이 숲속에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은 전후 맥락이 없이 갑자기 등장하여 독자들은 누가 먼저 키스를 시작한 것인지, 키스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으며, 단지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있는 정지된 순간만을 마주하게 된다. 이 장면이 등장하기 바로 전, 스킴은 일기에 “정말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Technically nothing has happened)라고 썼는데(38), 사실 이 둘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이성애 중심주의 캐나다 사회에서는 용납되기 힘든 동성애적 관계이자, 동시에 교사와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에어리얼 칸(Ariel Kahn)이 지적하듯, 스킴과 아처 선생님이 키스하는 이미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문자 텍스트의 권위를 전복하며 사회적으로 금지된 욕망의 충족/성취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341). 흥미롭게도, 이 장면은 두 페이지에 걸쳐 그려져 있는 데 여기에는 어떠한 설명도 쓰여져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구분

2) 스킴과 리사는 위카에 관심이 많다는 것 이외에 서로 공유하는 것이 없으며, 리사는 스킴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는지 관심조차 없다. 가령, 리사는 스킴이 학교에서 문학(드라마)을 가르치는 아처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이 둘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다.

하는 프레임도 생략되어 있다(40-41). 스콧 맥클라우드(Scott McCloud)에 의하면 프레임이 생략되어 그려진 이미지는 시간의 지배를 벗어난 공간으로의 도피를 의미하듯(103), 프레임없이 그려진 스킴과 아처 선생님의 키스 장면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아처 선생님과 그의 관계를 현실의 어떠한 시공간적 제약, 간섭도 받지 않는 환상의 영역에 두고 싶어하는 스킴의 숨은 욕망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가 용납되기 힘든 현실에 대해 스킴이 느끼는 혼란, 아픔, 좌절, 슬픔 등의 감정은 아처 선생님이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전달한다는 핑계로 아처 선생님 자택을 직접 찾아가는 장면에서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다. 스킴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아처 선생님은 혼자 주방으로 들어가 차를 끓이고 스킴은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데, 이 둘의 모습이 각각 분리된 칸에 그려진 것은 아처 선생님과 스킴의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하게 바뀌었음을 나타낸다(56). 차를 마시는 순간조차 서로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피상적인 대화만 이어가는 스킴과 아처 선생님의 모습이 분 단위로, 일렬로 나열된 사각형 칸에 그려져 있는 데, 이는 사제 간의 동성애가 결국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인식하게 된 스킴과 아처 선생님이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과 욕망을 억누른 채 상대에게 선을 그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긴장감, 어색함, 불안감, 좌절감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준다(57).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커다란 눈동자만 세 개가 그려진 그림 위에 “이웃들의 감시”(“NEIGHBORHOOD WATCH”)문구가 적힌 풋말이 걸려있는 전봇대가 한 페이지에 걸쳐 왼쪽에 사선으로 그려져 있고 페이지 아래에는 스킴의 뒤통수 일부가 그려져 있으며 전봇대 옆에 스킴의 나레이션이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나한테 날개가 있지만, 내 뼈들이 벽돌같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This is strange. This is the strangest ever. I feel like I have wings but my bones are bricks. Because.. Because.. Because... 58). 전봇대 풋말에 그려진 눈동자들은 마치 스킴을 향해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 데, 이는 스킴의 아처 선생님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욕망이 항상 사회적 통제, 감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임을 나타내며

(Stanley 192), 날개가 있지만 벽돌같이 무거운 뼈들 때문에 날지 못하고 있다는 스킴의 나레이션은 페이지 맨 아래 눈에 거의 띄지 않을 정도로 일부만 그려진 뒤통수 이미지와 함께 현실의 벽 앞에서 느끼는 그녀의 무기력함, 좌절감, 우울감을 독자들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좌절감과 혼란 속에서 괴로워하던 스킴은 아처 선생님을 직접 만나 자신과 나누는 키스의 의미를 물어보려 했으나, 아처 선생님은 스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학교를 떠나버린다. 이후 스킴은 계속 먹기만 하여 살이 찌게 되고, 날씬한 몸을 이상/정상/표준으로 여기는 학교 친구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스킴의 우울 증세와 폭식증은 학교에 놓고 간 물건을 가지러 학교에 잠시 머물렀던 아처 선생님을 놓친 후 더욱 심해지는 데, 아처 선생님을 간발의 차이로 놓친 스킴은 “분명히 말하자면, 16살은 내 인생의 최악의 시기”(Being sixteen is officially the worst thing I've ever been. 103)라고 생각하고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혼자 다니며 집에 돌아와서는 계속 먹기만 할 뿐이다(105). 스킴은 외로움, 공허함, 슬픔을 달래기 위해 택시들과 사람들로 혼잡한 도시의 밤거리를 혼자 돌아다녀 보기도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숙이 박힌 우울한 감정들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쉽게 사드라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You are never really alone in the city at night. There are always taxi drivers, coffee shop people. It just feels lonely. 107).

4. 일상화된 트라우마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임상 사회복지사들은 청소년 자살문제를 비롯하여 우울증 및 폭식증 등을 예방과 치료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할 뿐,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청소년 자살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청소년 우울증을 정신적 장애/질병으로 간주하면서 약물을 통한 치료에만 관심을 둘 뿐, 이것이 반복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이며 불평등하고 불합

리한 사회제도와 구조에 기인한 것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Froese and Greensmith 33).

『스킴』은 청소년 자살 충동, 우울증, 폭식증 등을 스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 중심적 캐나다 사회구조 문제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각적, 다층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이끈다. 먼저, 스킴의 우울증과 폭식증은 캐나다 사회에 팽배한 동성애 혐오주의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스킴이 속하는 사회는 호모포비아, 즉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주의가 팽배한 곳이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게이 남학생 존이 자살한 이유도 바로 동성애 혐오주의 때문이다. 존이 자살한 이유가 동성애자라는 주변의 놀림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처 선생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동성애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스킴은 자신은 존의 죽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심지어는 존을 따로 만난 적이 없어 그에 대해 잘 모른다고 존과의 어떠한 연관성도 부정한다(23). 하지만 스킴은 존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며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가 존에게 가하는 보이지 않은 폭력에 속으로 분노를 느끼고 화가 나 있지만, 이를 밖으로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킴은 자신이 존과 같이 동성애자라는 의심을 피하고자 존에 대해 일부로 험담을 하고 동성애를 비하하는 농담을 함으로써 오히려 동성애 혐오에 가담하는데, 이는 스킴을 더욱 위축되고 우울하게 만들며 자살 충동을 부추길 뿐이다. 스킴은 이성애만이 우리 사회의 유일한 자연스러운 성적 표현이고 퀴어 욕망 자체를 고쳐져야 할, 혹은 없어져야 할 ‘문제’로 만드는 이성애 중심주의로 인해 자신의 퀴어(레즈비언) 정체성을 옷장 속에 숨기도록 강요받으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 차별, 억압, 배제를 정당화하는 이성애 중심주의의 억압과 폭력으로 인해 일상에서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킴의 섭식 장애, 우울 장애, 자살 충동은 캐나다 사회에 퍼져있는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 차별, 억압과도 관련이 있다. 그 예로, 스킴은 같은 반 친구 줄리 피터스의 생일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심한 집단따돌림을 경험한다. 스킴이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는 백인이 아니고, 여성스럽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오즈의 마법사 겹쟁이 사자 복장을 하고 왔기 때문이다(I went as the cowardly Lion from

the wizard of Oz. Everyone at the party was a ballerina or a figure skater. 83). 날씬한 몸을 드러내는 발레리나 복장이나 피겨스케이터 복장을 하고 나타난 백인 친구들은 방에 모여서 게임을 하며 신나게 노는 동안, 스킴은 무리에 끼지 못하고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때 날씬한 백인 소녀들 무리에 끼지 못하고 거실에서 스킴과 함께 TV를 보는 또 한 명의 소녀는 백인 부부에 입양되어 베트남에서 캐나다로 건너 온 하이엔 워쇼키(Hien Warshowski)인데, 하이엔 역시 스킴과 마찬가지로 군인 복장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단따돌림을 당한다. 날씬한 몸과 백인성을 ‘이상’과 ‘표준’으로 간주하는 백인 소녀들은 날씬하지도 않고 백인도 아닌, 즉 비순응적이고 통제 불가능하고 비규범적인 몸을 가진 스킴과 하이엔을 보고 잠시 깔깔거리고 웃기만 할 뿐,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공습경보가 울리자 생일파티를 즐기던 백인 소녀들은 “공습 경보! 모두 대피!”(AIR RAID! OUT!)라고 합창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른 방으로 대피를 하면서 스킴과 하이엔을 집 밖으로 내쫓는다(And then this herd of ballerinas swooped into the room and chased Hien and me out of the house. 85). 스킴과 하이엔은 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집 밖에 한참을 서 있으면서 문이 곧 열리기를 기다리지만(We waited and waited for them to let us back in.) 굳게 닫힌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는다(86). 날이 어두워지자 스킴은 “밖에 있는 것이 점점 무서워졌다 카-멍청한 짓”(it was scarier stupider to sit outside)임을 알게 되고 백인 친구들이 자신을 안으로 들여 보내주는 기대 자체를 아예 포기한다(87). 스킴이 일기에 적은 문장에는 스킴이 “무서워졌다”(scarier)단어에 줄을 긋고 다음에 “멍청했다”(stupider)라는 단어로 바꾸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데, 이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백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었음을 정확히 간파하고, 백인 친구들의 잔인한 행위를 오히려 ‘멍청한’ 짓으로 치부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스킴의 강인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스킴은 백인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타자화, 주변화하는 억울하고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집에 혼자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을 선택한다. 벤치에서 일어나 나뭇가지를

겪으면서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즐기는 듯이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스킴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구분해주는 칸이 생략된 채 검은색 배경 페이지에 일련의 연속된 동작으로 그려져 있다(87). 페이지 왼쪽에는 “처음에는 어둠 속을 걷는 것이 무서웠지만, 곧 어둠이 무섭지 않고 단지 조용하게만 느껴졌다”(The dark’s not so scary. It’s just quiet.)라는 스킴의 내레이션이 쓰여져 있는 데(87), 이는 독자들이 유색 소수민족이 캐나다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등적이고 불리한 대우와 차별이 스킴의 삶 속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스킴이 이에 대해 덤덤해지고 익숙해져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캐나다는 사실 1971년 피에르 트뤼도(Pierre Trudeau) 총리가 캐나다 다문화 정책(Canadian Multiculturalism Policy)를 공식 발표한 이후 일찍부터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면서 여러 민족집단과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종차별을 철폐하고자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스킴』에서 스킴과 베트남에서 온 소녀 하이엔이 친구들에게 당하는 집단따돌림은 대표적인 다민족국가 중 하나로 알려진 캐나다에 여전히 비유럽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과 및 억압이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드러냄으로써 캐나다 정부가 표방하는 다문화주의의 양면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스킴은 일기에 줄리의 생일파티에서 일어났던 일의 의미나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들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이 일과 관련된 일이나 사람들에 대해 아주 간단한 일상적 기록만을 남길 뿐이다. “월요일에 줄리는 내가 생일선물로 그녀에게 주었던 UZ 테이프가 고마웠다는 메모를 내 책상에 놓고 갔다”(On Monday Julie left a note on my desk thanking me for the UZ tape I got her. 88), 하이엔은 그 다음 해에 서드베리로 이사했다(Hien moved to Sudbury the next year. 88). 이는 독자가 어떤 언어로도 설명, 재현하기 힘들 정도로 이 일이 스킴에게 이해불가능하고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 즉 그녀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사건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이후 집단따돌림 당한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스킴이 계속 먹기만 하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데, 이는 스킴에게 ‘먹기’가 트라우마에 대한 대응 기제이며 그녀가 트라우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Fink 138). 다시 말해, 스킴이 친구

생일파티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은 캐나다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지속 되어 온 아시아인이 겪는 인종차별, 인종괴롭힘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스킴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만성적 트라우마가 되어 그녀에게 자살 충동과 우울증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대응 기제로 스킴은 ‘계속 먹는다’는 것이다.

폭식으로 인해 점점 뚱뚱해지자 스킴은 학교에서 사회가 규정하는 ‘건강,’ ‘아름다움’의 기준에 미치지 않은 ‘특이한,’ ‘비평균적,’ ‘비정상적,’ ‘비자연적’인 몸, 즉 장애가 있는 몸을 지녔다는 이유로 심한 차별, 배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더글러스 베이튼(Douglas Baynton)가 지적하듯, 19세기 중반부터 백인 다수의 비장애 지배자들은 소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억압의 구실로 다윈의 진화 이론, 우생학 이론을 이용해왔다(20). 주류 집단인 백인들은 다윈의 정상성 개념을 근거로 유색인종은 진화론적 초기 혹은 퇴화단계, 즉 비정상 신체(장애)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장애인’과 ‘유색인종’을 동시에 사회의 열등한 인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온갖 법적, 제도적 차원의 차별, 배제를 정당화, 합법화해왔다(Baynton 24). 스킴의 장애 역시 이미 사회적으로 열등한 가치로 간주되는 그녀의 ‘비백인성’에 힘입어 그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 억압, 배제를 더욱 용이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킴은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피구게임을 할 때 자신이 친구들이 힘껏 던진 공에 맞는 상황에 비유하여 그녀의 몸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유평화”되는지 설명한다. 친구들이 던진 공들을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등, 머리, 허리 등을 맞고 그대로 쓰러지는 상황에 대해 스킴은 “만약 너가 눈썹도 없고 머리도 안감고 다니는 나타사 케이크처럼 못생겼다면, 너는 평생쓰레기 취급을 받는 사람으로 낙인찍힌다”(If you are ugly, like Natasha Cake who has no eyebrows and doesn't wash her hair, then you are marked to be treated like crap for life), “내 몸도 (생물학적인 이유로) 기이한 것으로 낙인찍혔다는 생각이 들었다”(I think I am also marked to some degree (biologically) as a weirdo for life), “너가 한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한 모든 행동은 너에게 표식을 남기고, 이는 너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I think everything you do and everything people do to you leaves a mark, or at

least it affects who you are.)라고 일기에 몸의 사회적 유표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이 억압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부당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당하기 쉬운 입장에 놓여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124-25). 또 다른 체육 시간에도 눈을 감고, 입을 살짝 벌리며, 오른팔에 깃스를 하고, 무기력한 표정으로,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매트에 누워있는 스킴의 몸이 그려진 전체 한 페이지에 걸쳐 그려져 있는 장면에서도(74) 스킴의 날씬하지 않고, 유색의 몸이 사회적으로 유표화되기 쉬운 상태에 있음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히더 사이케스(Heather Sykes)가 지적한대로, 뚱뚱하고, 비백인의, 젠더규범을 따르지 않는 귀여한 몸은 종종 수리되어야 할 고장난 물건이라는 취급을 받고 주변의 놀림을 받기 쉬운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데(96), 이 장면에서 스킴의 몸이 그려진 각도와 시선은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건강/아름다움 등의 영역에서 ‘정상’, ‘표준’, ‘이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그녀의 몸이 상호교차적 차별, 조롱, 무시, 비하, 경멸을 받기에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무시와 배제가 스킴에게 일상화된 트라우마가 되어 그녀에게 우울증, 자살 충동, 폭식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일상화된 트라우마로 인한 스킴의 심리적 혼란스러움, 우울함, 불안정함은 스킴이 쌓인 눈 위에 “I HATE YOU”라는 자국을 내며 걷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이 장면에서 스킴이 한 쪽 발로 “YOU”를 세 번 지우고 “YOU” 대신 “I HATE EVERYTHIN-”이라고 쓰는 모습이 포착되는데(89), 이는 스킴이 자신이 증오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어 “EVERYTHIN-”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킴이 증오하는 대상은 자신에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떠난 아처 선생님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동성애자라는 소문 때문에 비겁하게 자살을 선택한 존을 향한 것일 수도 있으며, 자신을 뚱뚱하고 말이 없다고 무시하고 따돌리는 친구들일 수도 있으며, 학교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일 수도 있다. 이는 스킴을 화나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혐오/증오의 대상이 단순히 특정한 인물 “YOU”로 명명되거나 좁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비인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구조

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 장면에서 눈 위에다 글자 YOU를 지우고 EVERYTHIN-까지만 쓰고 나서, 몸을 뒤로 돌려 눈 위에 새긴 글자를 쳐다보는 스킴의 모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스킴이 일상에서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동성애차별,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어떠한 언어로도 완벽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5. 학교의 통제와 감시

『스킴』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자살예방 행사들이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스킴』이 청소년 자살 충동, 우울증, 폭식증 등을 개인적 장애/질병으로 간주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전문가의 개별화된 의료 관리와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의학적 모델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존의 자살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학교는 학생들의 자살 충동을 억제하고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다양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한다. 가령, 학교는 공용계시판에 존의 사진을 걸어 놓고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존의 죽음을 상기시키고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 영화 관람을 요구한다. 이 밖에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존을 비롯하여 또래 압력이나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삶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행사도 주최하는데, 이 행사에서 학생들은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하얀 풍선을 날리도록 요구받는다. 스킴 역시 학교로부터 자살 예방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존의 자살에 대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밖으로 표출하고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요받고, 심지어 상담 교사들과 일반 교사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여부까지 감시받는다. 자살 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넷 선생님(Mrs. Hornet)을 비롯한 상담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오 해피 데이”(Oh Happy Day)를 부르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스킴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 여기며 “참여한

학생 모두와 눈을 마주치며 웃으며 노래를 부르는 선생님들이 미친 사람이나 혹은 연쇄 살인범 같다는 생각만 할 뿐이다”(60). 게다가 호넷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노트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슬프게 만드는 것의 목록을 적는 “자신을 사랑하기” 활동(“self-love” exercise)을 시키는 데 스킴은 이러한 활동 역시 “멍청한 질문”(stupid question)으로 여긴다(61). 심지어 이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타인에게 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만, 호넷 선생님은 스킴을 쫓아와서 그녀가 종이에 무엇을 적었는 지 강제로 확인한 후 위로의 차원에서 스킴을 안아주지만, 이는 스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스처에 불과할 뿐이다(61).

뿐만 아니라, 생일파티에서 스킴에게 집단따돌림을 주도했던 백인 소녀 줄리가 “소녀들은 삶을 찬양한다”(Girls Celebrate Life)라는 이름의 자살 예방 클럽을 결성하자, 학교는 학생들에게 GLC에 가입하기를 강요한다. 스킴은 GCL클럽에 가입하지 않고 학교에서 최대한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눈에 띄지 않고 언급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조용히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을 선택한다. 그녀는 학교 수업을 빠지며 학교의 후미진 곳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불면증으로 밤에 잠을 설치고, 아처 선생님이 떠난 이후 자신만의 세상에 들어가 버린다. 집에서는 방에 틀어박혀 계속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생각 없이 이것저것 먹으면서 우울함, 슬픔, 분노, 외로움 등의 감정들과 조용히 혼자 싸울 뿐이다. 계속 먹기만 한 결과 스킴의 몸은 점점 뚱뚱해지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놀림이 더욱 심해지자 스킴은 더욱 우울해진다. 이를 눈치챈 GCL를 운영하는 학생들은 평상시 고딕한 것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존의 죽음을 애도하는 카드를 쓰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스킴을 자살 고위험군 집단에 분류하고, 스킴이 반항심과 우울증 때문에 복도 게시판에 붙여진 존의 얼굴이 찍힌 포스터에 동성에 혐오증을 반영하는 단어 “fag”를 적어서 포스터를 훼손했을 것이라는 의심까지 한다. 이들은 스킴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그녀를 주변의 많은 관심과 특별한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으로 낙인찍고 모든 움직임과 행동을 철저히 감시한다.³⁾ 『스킴』에

3) 스킴이 받는 과잉 감시와 동료 따돌림은 사실 북미 지역에서 중국인과 일본인을 비롯한 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행했던 인종차별의 역사와 연결된다. 즉, 학교가 스킴에게

서 스킴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그려진 여러 이미지는 돌봄과 보호를 가장한 비대칭적, 일방향적인 학교의 시선에 의해 스킴이 항상 감시받고 있으며 이러한 감시가 스킴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부추기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스킴은 리사에게 죽은 존의 얼굴을 GCL게시판에 붙이거나 자살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보기를 요구하는 GCL활동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자살을 부추기고 있는 모순을 지적한다(54). 또한, 그녀는 “목 매달아 죽기”(Ha! I'd rather hang myself!), “머리에 총 쏘기”(Shoot yourself in the head!), “쥐약 먹기”(Eat rat poison!!!), “손목 긋기”(Slit your wrists!), “지붕에서 떨어져 내리기”(Jump off a roof!), “달려오는 버스에 치이기”(Dive in front of a bus!)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자살 방법을 리사에게 이야기하면서 깔깔 웃는다(54). 여기서 독자들은 학교의 자살 방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살 방법을 농담의 대상으로 삼는 스킴의 모습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청소년 우울증, 자살 충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작품의 결말에서도 장애와 질병치료에 있어서 전문가주의와 개인주의 관점을 강조하는 의학적 모델에 기반을 둔 학교의 제도적 돌봄(감시와 통제)이 스킴과 케이티와 같이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을 겪는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임을 여실히 드러난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트라우마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스킴에게 도움이 된 것은 학교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살한 남학생 존의 여자친구였던 케이티 매튜(Katie Matthews)와 새롭게 시작된 우정이다. 스킴이 우울감과 피로감만 느끼며 삶에서 어떠한 즐거움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자살한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케이티가 어느 날 스킴에게 그녀의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다. 케이티는 존의 자살로 인한 충격과 원치 않은 주변 사람들의 동정 때문에 지붕에서 추락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을 정도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스킴만이 자신의 심정에 진심으로 공감해주자 그녀

행사하는 감시, 통제, 규제, 억압은 과거 캐나다 정부가 유색인종 이민자들에 가했던 과도한 세금,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입국 금지명령, 차이나타운과 같은 아시아인들의 커뮤니티 성장기회를 박탈하는 억압적, 차별적 정책 등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Froese & Greensmith 41).

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스킴 역시 케이티와 대화하면서 그녀가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지 않는 강인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케이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아처 선생님과 이어가지 못했던 돌봄 관계(kinship)를 이어간다. 이러한 결말은 스킴과 케이티와 같은 청소년들을 비정상인, 열등한 장애인, 위험한 우울증 환자로 취급하면서 치료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감시, 통제, 억압 등을 정당화하는 학교의 자살 예방 관리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질병의 원인이 유무형의 사회문화적 배제, 낙인, 억압과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6. 스킴의 일기

『스킴』은 선형적 서사구조를 따르지 않고 일기형식의 열린 결말 구조(Froese & Greensmith 36)를 따른다. 주인공 스킴의 일기를 토대로 하여 쓰여진 『스킴』은 “치료받으면 곧 나아진다”는 성공 서사 이데올로기에 저항한다. 『스킴』은 ‘결국 모든 문제(장애/질병)가 고쳐지고 해결될거야,’ ‘결국에는 모든 상황이 나아지고 행복해질 거야’ 등의 회복형 서사구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첫 페이지부터 스킴의 목소리로 “디어 다이어리, 오늘 리사가 ‘모두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라고 말했어. 그건 특별하지 않아!”(Dear Diary, Today Lis said, “Everyone thinks they are unique.” That is not unique!! 5)라고 손글씨로 쓰여진 일기는 스킴이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 신뢰할 수 없는 친구들, 불공평한 사회제도 등에 대해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친구와 같다. 스킴이 일기장에서 내면의 자아와 나누는 대화는 장애/질병의 완벽한 회복이나 사회통합으로 귀결되기 위함이 아닌, 그녀가 자신의 감정들과 진솔하게 마주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동기를 스스로 알아냄으로써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함이다. 또한 말 풍선(speech balloon)이 아니라, 스킴 자신이 손으로 직접 쓴 글을 그녀의 목소리로 읽

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자기 독백, 고백적 성격이 묻어나는 스킴의 일기는 독자들에게 ‘인사이드’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가장 개인적인 감정, 생각, 느낌을 이해하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Cowdy 293).

이 작품의 열린 결말구조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왼쪽 전체 페이지에는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케이티의 뒷머리가 그려져 있고 페이지 왼쪽에는 어른들의 감시와 통제를 의미하는 공간인 학교를 나와 그녀에게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주는 공간인 숲으로 향하고 있는 스킴의 모습이 두 개의 패널 안에 그려져 있으며, 오른쪽 전체 페이지는 이 둘의 운명을 점치는 주사위가 하나 놓여있다(142-43). 이는 책표지에 손을 이마에 대고 눈을 반쯤 감고 어딘가를 멀리 바라보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그려진 스킴의 모습과 연결되어 정체성이나 삶의 애매모호성, 불확실성, 미완결성을 찬양하는 작품의 열린 결말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와 같이, 『스킴』이 열린 결말구조 안에서 두 소녀의 정체성과 이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고 미완결의 상태로 서술적으로 구성한 것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다양한 소수집단(유색인, 퀴어, 장애인 등)의 정체성과 삶을 주류(지배) 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해 본질화/고착화하고자 하는 특정 편견이나 선입견을 해체시키기 위한 시도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킴의 일기는 한 소녀의 개인적 일상을 기록하는 사적 서사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백인 중심의 캐나다 사회에서 아시아계 퀴어 소녀가 일상에서 받는 억압과 차별의 숨겨진 역사를 드러내는 공적 서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스킴은 일기에다가 일상에서 자신이 어떠한 차별, 소외, 배척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털어놓는데, 그녀의 일기는 사회의 편견, 무시, 억압,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스킴의 주체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가령, 호넷 선생님이 고딕한 것에 관심이 많고 이교도인 위카를 믿는 고트족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을 때(22), 스킴은 일기에 존의 경우 고딕한 것과 아무런 연

관이 없고 위카를 믿지 않는 데도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쓰며(John Reddear was on the VOLLYBALL TEAM, not a goth, and he KILLED HIMSELF!!! 22) 호넷 선생님이 지닌 고트족 학생들에게 대한 편협한 시각을 비판한다. 그녀는 일기장에 자살 예방을 위한 학교의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일차원적이며, 건강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뿐만 아니라, 스킴의 일기는 독자들이 스킴의 ‘먹는’ 행위가 부모, 친구, 선생님, 자기 자신과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보듬고 위로하는 자기 돌봄 행위에 가까운 것이며 사회에 대한 저항의 행위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티 핑크(Marty Fink)가 지적하듯, 스킴에게 ‘먹기’는 “인종차별주의와 동성애에 가하는 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되며, 그녀의 날씬하지 않은 몸은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기준에 대한 저항임이 그녀의 일기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135). 한마디로, 스킴의 일기는 캐나다의 공적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변방에 놓인 존재들의 사회 비판적, 저항적 목소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공간이 된다.

정리하자면, 독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목소리로 쓰여진 스킴의 일기를 통해 스킴이 주류 집단이 설정한 이상, 가치, 기준, 표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아웃 사이더’가 되려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녀가 백인 중심주의, 비장애인 중심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위협당하고 고통받는 무기력한 타자가 아니라, 억압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이에 주체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장애와 질병을 지닌 사람(소녀)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무성적인 존재라는 선입견, 편견을 없애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7. 결론

그래픽 소설 『스킴』은 텍스트보다 이미지에 의지하여 이야기를 풀어간다. 힐러리

츄트(Hillary Chute)가 “그래픽 소설은 프레임(frame)과 거터(gutter)의 가장 기본적인 조합을 통해 독자가 이미지를 해석하는 자신의 행동, 과정, 시간에 주목하게 한다”(767)라고 언급하듯, 이 작품은 독자들이 모든 이미지를 ‘천천히’ 사유하기를 유도한다. 가령, 『스킵』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그려진 이미지들을 비롯하여 글자 텍스트가 없는 이미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데, 이는 독자들이 이미지 하나하나에 주목하면서 이미지의 구조와 의미를 해석하는 데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주인공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에 더욱 공감하고 몰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Stanley 192).

사실, 캐나다에서 출판된 문학 작품에서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의 삶을 이들의 시각에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설령,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백인이 주류인 캐나다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근거하여 이들의 모습이 왜곡되어 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로 인해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은 실제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 배제, 무시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킵』이 비백인성, 퀴어성, 장애/질병을 이유로 비윤리적인 차별과 비인간적 폭력 아래 살아가는 아시아계(일본계) 캐나다인 퀴어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녀가 경험하는 일들, 특히 주류 사회 적응문제, 동성애, 자살 충동, 섭식 장애, 우울 장애 등을 그녀의 시각에서, 그녀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점은 스킵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이 작품은 스킵과 같이 캐나다 사회에서 비주류, 열등한 타자의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사회적 편견, 차별, 배제, 소외 등이 이들에게 만성적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이들이 보이는 자살 충동, 우울증, 폭식증 등은 개인적 정신질환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사회 구조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작품은 캐나다 사회에서 겹겹의 소외와 무시를 받고 살아가는 아시아계 10대 퀴어 소

녀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비주류 타자에게 가하는 다양한 폭력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캐나다 사회에서 비백인으로, 장애인으로, 퀴어로 살아가는 청소년(소녀)에 대한 여러 가지 스테레오타입의 공고함에 균열을 일으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 용 문 헌

- Berger, Ronald J. *Introducing Disability Studies*. LynneRienner Publisher, 2013.
- Berndt, Jaqueline. "Skim as Girl: Reading a Japanese North American Graphic Novel through Manga Lenses." *Drawing New Color Lines: Transnational Asian American Graphic Narratives*, edited by Monica Chiu, The U of Hong Kong, 2015, pp. 257-78.
- Baynton, Douglas C. "Disability and the Justification of Inequality in American History." *Disability Studies Reader*, edited by Davis Lennard J., Routledge, 2016, pp. 17-34.
- Chute, Hillary, and Marianne DeKoven. "Introduction: Graphic Narrative." *Modern Fiction Studies*, vol. 52, no. 4, 2006, pp. 767-82.
- Cowdy, Cheryl. "The Visual Poetics of Play: Childhood in Three Canadian Graphic Novels." *Global Studies of Childhood*, vol. 4, no. 1, 2011, pp. 291-301.
- Fink, Marty. "It Gets Fatter: Graphic Fatness and Resilient Eating in Mariko and Jillian Tamaki's *Skim*." *Fat Studies*, vol. 2, 2013, pp. 132-46.
- Froese, Jocelyn Sakal and Cameron Greensmith. "Que(e)rying Youth Suicide: Unpacking Sexist and Racist Violence in *Skim* and *13 Reasons Why*." *Cultural Studies Review*, vol. 25, no. 2, 2019, pp. 31-51.
- Kahn, Ariel. "On Being Unique: Gender Subversion in Two Graphic Novels for Young Adults." *Journal of Graphic Novels and Comics*, vol. 5, no. 3, 2014, pp. 336-43.
- McCloud, Scott. *Understanding Comics: The Invisible Art*. William Morrow Paperbacks, 1994.
- Meerai, Sonia, Idil Abdillahi, and Jennifer Poole. "An introduction to anti-Black Sanism." *Intersectionalities: A Global Journal of Social Work Analysis*,

- Research, Polity, and Practice*, vol. 5, no. 3, 2016, pp. 18-35.
- Miller, Michelle. ““I Hate You Everything”: Reading Adolescent Bad Feelings in Tamaki’s *Skim*”. *ESC*, vol. 43, no. 1, 2017, pp. 83-102.
- LeFrançois, Brenda A., Robert Menzies, and Geoffrey Reaume. *Mad Matters: A Critical Reader in Canadian Mad Studies*. Canadian Scholars’ Press, 2013.
- Linton, Simi. *Claiming Disability: Knowledge and Identity*. New York UP, 1998.
- Preston, Jeffrey M. *The Fantasy of Disability: Images of Loss in Popular Culture*. Routledge, 2016.
- Siebers, Tobin. *Disability Theory*. U of Michigan P, 2008.
- Stanley, Marni. “Unbalanced on the Brink: Adolescent Girls and the Discovery of the Self in *Skim* and *This One Summer* by Mariko Tamaki and Jillian Tamaki.” *Graphic Novel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ited by Michelle Ann Abate and Gwen Athene Tarbox, The UP of Mississippi, 2017, pp. 191-204.
- Sykes, Heather. *Queer Bodies: Sexualities, Genders, & Fatness in Physical Education*. Peter Lang, 2011.
- Tamaki, Mariko and Jillian Tamaki. *Skim*. Groundwood Books, 2008.

Abstract

Disability/Illness Narrative in *Skim*

Hyun-Joo Yoo
Sangmyung University

Skim (2008) by Mariko Tamaki and Jillian Tamaki is a semi-graphic memoir based on the coming-of-age story of Kimberly Keiko Cameron, a Japanese-Canadian queer girl whose nickname is Skim. Skim is 16 years old and attending a Catholic girls' high school in Toronto in the 1990s, where most students are white and thin. Due to her non-whiteness, queerness, fatness, depression, and interest in Wicca, Skim experiences discrimination, marginalization, and exclusion at school, which lead to daily trauma for her. Trapped within in her loneliness, Skim eats as a defense mechanism against the normalized daily trauma. This eating, in a vicious circle, leads to more fatness and causes her to become an object of ridicule and stigmatization, ultimately leading to suicidal depression. Skim is singled out as a person who is the most likely to commit suicide at school and thus faces institutional control, surveillance, discipline, and oppression led by her teachers and peers, who consider Skim's fatness (a physical disability) and depression (a mental illness) to be an individual problems to be fixed or eliminated with the help of school-based suicide prevention programs.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how *Skim* helps readers understand youth suicidal depression and eating disorders in connection with sexism, ableism, racism, sanism, and heterosexual normativity, all of which are deeply rooted in Canadian society. In addition, I show how *Skim*, presented in a diary format, resists the triumphant

narrative of "getting better" and ultimately contributes to eliminating the prejudice that young people marginalized due to fatness, queerness, non-whiteness, and suicidal depression face, making them powerless, passive, and voiceless in Canadian society.

Key Words: Skim, youth suicide, depression, trauma, disability/illness

논문접수일: 2023.01.30

심사완료일: 2023.02.19

게재확정일: 2023.02.23

이름: 유현주

소속: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조교수

이메일: yhj5071@smu.ac.kr

